

포용적인 조달을 위한 도약

포용적 디지털화 및 인권 기반 조달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해소

2023. 10. 5.(목) 19:30-22:00

주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포용적인 정보통신기술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3ict)

배경

전 세계 많은 도시는 ICT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구매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및 고령인구와 관련된 인권 및 디지털 포용성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모든 국제 이니셔티브를 위한 스마트시티(Smart Cities for All global initiative)를 통한 세계장애포괄적정보통신기술구상(G3ict)은 세계지방정부연합 및 G20 글로벌스마트시티 연합을 위한 세계경제포럼 사무국과 협력하여 인권 기반의 지역화를 지원하는 기술 조달 정책이 전 세계 도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 평등과 포용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규 포용적인 조달을 위한 도약(Inclusive Procurement Launchpad) 프로젝트하에, 세계장애포괄적정보통신기술구상(G3ict)은 이스탄불, 키수무, 로스앤젤레스, 쿼토, 상파울루를 포함한 6곳의 도시와 협력하여 장애인을 포함해 모두를 위한 접근성이 강화된 디지털 도시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달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시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한다. 본 시범 정책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9조에 명시된 접근성을 최초로 인권으로 인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립되었다.

목표

본 세션에서는 ICT의 포용적 공공조달에 관한 모범 정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신들만의 상황 및 규제 기본 체계의 맥락에 따라 포용적 조달 정책을 도입한 최초의 도시 군이 얻은 교훈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시범 정책을 바탕으로 도시가 기술을 조달 및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인권기반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는 장애인 및 고령인구에 대한 디지털 격차를 좁히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세션은 이러한 교훈을 공유 하면서 인권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가시적인 노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또한, 본 프로젝트와 지역 수준의 인권 및 평등 증진에 관심이 있는 도시들을 한국과 아시아에서 발굴한다.

중점 논의사항



1. 장애인 인권 협약
2. 지속가능발전목표
3. 신규 도시 의제

